



## 꿈과 도전의 아이콘, TEKA(Teheranro KAIST Club)!

테헤란로를 이끄는 핵심 4인방, 강희구, 권재륜, 박원식, 한웅 동문



TEKA(Teheranro KAIST Club)는 KAIST 출신으로 벤처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이다. 정보 공유, 헤드 헌팅 그리고 친목 도모의 취지로 1999년 가을 발족했다. 현재 온라인 카페(싸이월드) 회원수가 400명이 넘는 TEKA의 회원 중에는 싸이월드, 네오위즈, 새롬기술 등 한국 벤처를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 TEKA의 정예(?) 멤버 4명에게 TEKA와 KAIST, 벤처 업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꿈과 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산업경영 91학번(학사) 권재륜 동문은 TEKA의 공동 창립 멤버로 경영 컨설팅, 벤처 캐피탈, '옥션의 이베이 매각' 등의 기업 인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고, 현재는 한국 M&A 주식회사와 온라인 교육업체 엑스터디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권재륜 동문과 함께 TEKA를 창립한 경영과학 86학번(학사), 경영공학 96학번(석사) 강희구 동문은 국내 최초 ERP 시스템인 영림원 소프트랩의 창업 멤버이며, 현재는 국내 최초 온라인 패션 쇼핑몰인 에이다임 패션플러스사업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산업공학 90학번(학사), 경영공학 94학번(석사) 박원식 동문은 금융 솔루션 넷엔미닷컴(www.netnme.com)을 창업했고, 현재는 이모션의 부사장으로 COO, CMO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물리학과 91학번(학사), MIS 99학번(석사) 한웅 동문은 現 TEKA의 회장으로, 한국 M&A와 중국 해피캠퍼스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미래셋벤처투자에서 기업투자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 학연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체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TEKA 모임이 결성된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0여 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대박'과 '신화'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 벤처 붐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시기. 이 시기를 거쳐 벤처 업계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보니 KAIST 동문 모임이 대표이사나 임원급이 참여하는 시니어(Senior) 그룹 위주로는 활성화되어 있는 데 반해 젊은 그룹의 동문 모임은 없는 게 현실이었다. 더불어, 전산과와 경영학과 출신들이 주로 IT와 금융 분야의 벤처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두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벤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립 멤버의 의도대로 TEKA에서는 회원들끼리 수 차례에 걸친 벤처 창업 시도와 성공이 이어졌고, 회원들 간의 경쟁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TEKA의 아이덴티티는 한 마디로 '학연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외적으로도 2000년 5월에는 대치동 사거리에 있는 '벤 플러스' 카페를 회원들이 직접 투자 인수해 회원들 간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 카페는 일명 '벤처 카페'로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기도 했다.

## 벤처 업계의 미래는 밝다

'격세지감'이라고 할까? 어찌 보면 10년 전의 벤처 붐에 비해 현재는 벤처 업계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TEKA 회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한웅 동문은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그만큼 벤처 업계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라 판단했다. 전체 산업 군에서 차지하는 벤처 업계의 비중을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벤처 기업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이나 벤처 캐피탈이 벤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벤처 업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시간을 되돌려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앞둔 입장이라면, 다시 벤처 업계로 진출할 거냐는 질문에 박원식 동문은 이번엔 제대로 한번 일을 저지르고 싶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만을 갖고 창업했는데, 현실적 준비가 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생생한 충고를 토대로 실질적인 준비를 거쳐 창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인 TEKA가 본인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데, 실제로 동문 관련 모임 중에 유일하게 참석할 정도란다.

## KAIST인이여, 꿈을 갖고 도전하라

TEKA 회원 모두 이구동성으로 KAIST의 인터넷 인프라가 벤처 업계로 진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악했던 1990년대 초의 전산 및 인터넷 환경에 비해, KAIST 캠퍼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인프라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는 타 대학과 비교해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소 4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벤처 업계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벤처 업계에서 KAIST 출신 성공 신화가 가능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KAIST의 근원적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앞선 IT 인프라 환경뿐만 아니라 벤처나 창업 관련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EKA의 가장 맏형인 강희구 동문은 후배들을 향해 "꿈을 갖고 도전해라!"라는 화두를 던진다. 성공과 보람의 대가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요새 젊은 후배들은 너무나 안정적인 것만을 쫓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도전을 하



### 강희구 동문

KAIST 산업공학(학사) 졸업(1992)  
KAIST 경영공학(석사) 졸업(2001)  
現 (주)에이디인 패션플러스사업부 본부장

### 권재륜 동문

KAIST 산업경영(학사) 졸업(1997)  
現 한국 M&A (주) 대표

### 박원식 동문

KAIST 산업공학(학사) 졸업(1994)  
KAIST 경영공학(석사) 졸업(1996)  
現 이모션(주) 부사장

### 한웅 동문

KAIST 물리학과(학사) 졸업(1996)  
KAIST MS(석사) 졸업(2002)  
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업투자팀 팀장

◀ 사진 좌측부터 강희구, 박원식, 한웅, 권재륜 동문

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그 도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경험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심이 담긴 충고도 해준다.

## 꿈과 도전의 TEKA 바이러스

이번 동문 탐방에서는 3가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벤처 기업들과 KAIST와의 취업 연계를 공식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간 학교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 위주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만 운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벤처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 수집에 애로가 많았다. 이번 동문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 기업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모여 있는 TEKA가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벤처 기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은 지금 즉시 TEKA 카페(<http://kaist.cyworld.com>)에 가입하길...

두 번째는, 2008년부터 테크노 MBA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인사이트 세미나의 '벤처 분야' 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간 학교에서 운영한 세미나와 특강 강사는 대표이사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실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학생 자치 세미나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전하고 강의를 의뢰하자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세 번째는 '꿈'과 '도전'에 대한 일깨움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안정적인 삶에 기대고, 현재 생활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배로서 TEKA 회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학창 시절 모습 그대로 꿈과 도전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KAIST 학생들보다도 꿈과 도전에 대한 열망을 더 느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꿈과 도전의 TEKA 바이러스가 가득히 퍼져나가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B**

➡: 고영선 기자

